

## 다우닝가 10번지의 그림자

# The Shadow of 10 Downing Street



---

### 이해의 틈

2020년 4월, 런던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집무실은 바깥의 햇살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큼지막한 나무 탁자 위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그려진 붉은색, 푸른색의 선들은 마치 미지의 암호를 해독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 **피터 존슨** 총리는 그 종이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저 멍한 표정이었다. 그의 금발 머리는 늘 그렇듯 헝클어져 있었고, 느슨하게 맨 넥타이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총리님,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가파르게 치솟는 이 붉은 선이 바로 확진자 수입입니다.”

젊은 보좌관 **에드워드 장관**은 펜으로 그래프의 한 지점을 짚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보고서의 내용은 명료했다. 바이러스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지금 당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였다.

“지수함수...라... 그거 혹시 콩고민주공화국을 말하는 건가? 내가 예전에 방문했던 나라인데.”

피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에드워드 장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총리님, '지수함수'는 어떤 양이 일정한 비율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한 명의 감염자가 여러 명에게 전파하고, 그 여러 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그래프의 초기에는 완만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 대신, 낡은 시집

의 구절이나 엉뚱한 역사적 사건들이 떠올랐다.

“바이러스... 그게 무슨 고대 로마의 전설 같은 건가?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전사가 도시를 휩쓸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에드워드 장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총리의 무지함에 절망감을 느꼈다. 보고서 속의 차가운 숫자와 총리의 순진한 표정 사이의 간극은 마치 메울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다. 총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바이러스는 현실 세계에서 견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럼 록다운은? 축구 경기장 문을 닫자는 건가?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경기를 취소하면 국민들이 실망할 텐데.”

피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에드워드 장관은 더 이상 설명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들린 펜을 짹 쥐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악몽 같았다. 지수함수가 무엇인지,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총리 앞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과학적 근거가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

### 현실의 그림자

총리 집무실 바깥, 런던의 거리는 이미 낮선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TV 뉴스 속보 채널에서는 24시간 내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도하고 있었다. 지수적으로 늘어나는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총리처럼 그것의 심각성을 온전히 체감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병원 앞에는 구급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의료진은 방호복을 입은 채 지친 기색으로 환자들을 돌봤다.

SNS 피드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불안한 얼굴들이 넘쳐났다. 펄은 텅 비었고, 극장은 문을 닫았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에도 인적은 드물었다. 이 모든 것이 총리가 이해하지 못한 '지수함수'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 감염자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네 명이 여덟 명... 그 숫자는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영국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서로를 의심했고, 공포는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퍼져 나갔다. 에드워드 장관이 총리에게 보여준 그래프의 붉은 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런던의 모든 시민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총리의 무지와 현실의 비극적 상황이 교차하며 런던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

### 마지막 페이지

며칠 후,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 정적이 흘렀다. **피터 존슨** 총리는 침대 위에서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는 창밖의 런던을 바라보려 애썼지만, 흐릿한 시야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에드워드 장관이 보여주었던 보고서의 이미지가 다시 떠올랐다. 가파르게

치솟던 붉은 선, 그리고 '지수함수', '바이러스', '록다운'이라는 단어들. 이제야 그는 그 단어들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지수함수는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숨 막히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바이러스는 고대 전설이 아니라, 자신의 폐를 짓누르는 차가운 실체였다. 록다운은 축구 경기를 취소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멈추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는 뒤늦게야 그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에드워드... 록다운... 꼭... 해."

그의 목소리는 희미한 속삭임에 불과했다. 이윽고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내 관저의 문이 급하게 열리고, 의료진들이 달려와 그를 들것에 실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가는 가운데, 텅 빈 총리 집무실에는 햇살만이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는 피터 존슨이 던졌던 어리석은 질문의 메아리만이 맴도는 듯했다.